『中國學』, 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1
pp.001-019. ISSN : 1229-9618

樟樹(清江)방언의 入聲 운미에 관한 연구*
-『辨字摘要』를 중심으로**

박규정***

【목 차】

1. 서론
2. 樟樹(清江)방언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 및 음가
   1)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
   2) 입성 운미의 음가
3. 樟樹(清江)방언 입성 운미 병합에 대한 최적성이론 분석
   1) *[-t]와 *[-k]
   2) *[-t]와 *[-ʔ]
   3) *[-l]와 *[-k/-ʔ]
   4) *[-ʔ]와 *[-k]
4. 결론

【초록】

『辨字摘要』는 18세기 중엽에 江西 清江縣에서 편찬된 운서의 성격을 지닌 습자서로, 글자를 우선 平上去入에 따라 분류한 후에 音韻에 따라 '字組'로 모아 그 의미 및 용례를 간단히 설명하였다.『辨字摘要』에서 개별 글자가 각 '字組'로 분류된 양상을 통하여, 당시 樟樹(清江)방언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을 알 수 있다. 첫째로 */-p/는 */-t/로 병합되었으며, 둘째로 전위모음 뒤에 있는 */-k/는 /-t/로 병합되었으나 나머지 */-k/는 독립된 음가를 유지한다. 다만, 한자의 특성 및 관련 자료의 부재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 S1A5B5A17046995)
** 이 논문은 '대한중국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2023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辨字摘要』 입성 글자 운미 병합에 대한 최적성이론 분석」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되었다.
*** 박규정.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x8904@naver..com)

인하여 운미의 정확한 음가를 파악할 수 없으나, 贛방언 내의 제방언을 통하여 다섯 가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t], *[-k]), (*[-t], *[-ʔ]), (*[-l], *[-k]), (*[-l], *[-ʔ]), (*[-ʔ], *[-k]). 이러한 음가의 차이는 제약조건 Ident(PlaceF), *-p]σ, *-t]σ, *-k]σ, *[-oral]]σ, Ident(MannerF), Ident I→O(Nasal), *[+obs]]σ, *[+nasal]]σ, *[+lateral]]σ, MAX(segment), No-Coda, *[-back][-Cons]&k 사이의 등급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키워드】辨字摘要, 樟樹(清江)방언, 입성, 운미, 병합

1. 서론

樟樹市는 縣級市로서 江西省에 속해 있고 宜春市의 관할 아래에 있으며, 高安市(北), 新餘市(西), 新幹縣(南), 豐城市(東)와 사방으로 인접해 있다. 현재 樟樹市에서는 贛語 宜春片에 속하는 樟樹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樟樹방언에 대하여 李軍(2015a/b), 陳芳(2019), 習晨(2020), 박규정(2022) 등에서 공시적, 통시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공시적 관점의 연구인 習晨(2020)[1]를 제외한 통시적 관점의 연구에서는『辨字摘要』가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는데 이는『辨字摘要』가 당시의 樟樹(清江)방언[2]의 음운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辨字摘要』는 습자서(習字書)로서 1757년에 江西 清江縣 출신의 饒應召가 집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3], 사성(四聲)에 따라 글자를 나눈 뒤에 유사한 音韻을 근거로 '字組'로 묶어[4] 의미, 용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清江 지역에서 사용되던 방언의 음운 체계가 반영된 자료가 희소한 현재의 상황에서, 樟樹방언에 관한 통시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辨字摘要』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謝豔紅&周賽華(2010)[5] 및 李軍(2015a)[6]에서는『辨字摘要』의 글자

1) 習晨,「江西省宜春市樟樹(市)方言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20.
2)『辨字摘要』가 편찬된 18세기에는 樟樹市가 清江縣으로 불렸으므로, 본고에서『辨字摘要』의 입성과 관련해서는 '清江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표기의 일관성을 위하여 '樟樹(清江)방언'으로 적고자 한다.
3)『辨字摘要』는 18세기 중엽에 최초로 편찬되었으나, 파본(破本)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민국(民國)시기에 간행된『詳註辨字摘要』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饒應召,『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李軍,『江西贛方言歷史文獻與歷史方音研究』, 商務印書館, 2015, p.18.
4) 음성 및 음운적 특징에 따라 글자를 분류하고 조를 나눈 점에서,『辨字摘要』이 운서(韻書)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饒應召,『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p.2.

들이 보여주는 방언 음운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李軍(2015b)[7]에서는 贛語 방언의 시기에 따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시에, 18세기 臨江방언(현재의 樟樹방언)의 음운 현상을 고찰하면서『辨字摘要』를 주요 자료로 이용하였다. 陳芳(2019)[8]은 역시『辨字摘要』와『類字蒙求』를 통하여 18세기의 清江방언에 대하여 기술하는 동시에 南昌방언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통시적 연구는 대부분 음운학(音韻學) 연구로서, 구체적인 음성 및 음운 조건을 설명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관점, 즉 攝과 韻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성 부분에서 중세 중국어의 '*p'에 해당하는 운미 및 '*k' 운미 중 일부분이 '*t'에 대응하는 운미와 하나의 '字組'로 묶여 있는데,[9]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성 및 음운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박규정(2022)에서는 현재의 樟樹방언을 이용하여 입성 운미 병합의 음성적 조건을 추론한 바가 있으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적성이론을 통하여『辨字摘要』의 입성 운미가 병합되는 내부적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樟樹(清江)방언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 및 음가

1)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

위에 밝힌 바대로, 박규정(2022)은『辨字摘要』에 수록된 입성에 속하는 글자 1496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10]

가. */-p/에 속하는 글자는 211개로 14.10%를 차지하고, */-t/에 속하는 글자는 405

---

5) 謝豔紅·周賽華,「贛方言韻書――『辨字摘要』音系」,『湖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0卷 第3期, 湖北師範學院, 2010.

6) 李軍,「『辨字摘要』――部乾隆年間的音節檢字法字典」,『晉中學院學報』, 第32卷 第1期, 晉中學院, 2015.

7) 李軍,『江西贛方言歷史文獻與歷史方音研究』, 商務印書館, 2015.

8) 陳芳,「『辨字摘要』與『類字蒙求』聲韻比較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19.

9)『辨字摘要』에서 이러한 '字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一'字組이다. '一'字組의 首要字 '一'는 그 운미가 중세 중국어의 *t에 대응하나, 字組내에는 *p에 속하는 '邑' 및 *k에 속하는 '益'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세 중국어의 운미를 각각 */-p/', */-t/', */-k/'로 표기한다. 饒應召,『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p.39.

10) 박규정,「『辨字摘要』 입성 글자 운미 병합의 음성적 조건에 관한 소고」,『중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22, pp.198-201.

개로 백분율은 27.07%이며, */-k/에는 44.65%인 668개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글자[11]는 212개로 14.2%를 차지한다.

나. 字組의 대표 글자를 '首要字'라 칭하며[12], 『辨字摘要』의 입성에는 163개의 首要字가 존재한다. 이중에서 */-p/에 속하는 것이 23개(14.12%), */-t/에 속하는 것이 65개(39.87%), -k*에 속하는 것이 75(46.01%)개이다.

다. 字組는 동종(同種) 운미를 유지하는 경우와 이종(異種) 운미가 혼재하는 경우로 나뉜다.

다a. */-p/는 전자와 후자의 비율이 2:21이며, */-p/에 */-t/가 혼재되어 있는 字組가 15개를 차지한다.

다b. */-p/는 전자와 후자의 비율이 39:26이며, */-t/에 */-p/가 혼재된 字組가 15개로 가장 많다.

다c. */-k/는 전자와 후자의 비율이 55:20이며, */-k/에 */-t/가 섞여있는 字組가 13개이다.

그리고 현대 樟樹방언에서의 운모의 발음을 이용하여 『辨字摘要』의 입성 운미가 병합되는 조건을 추론하였는데,[13]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라. */-p/는 모두 */-t/로 합류하였다.[14]

마. 운복(韻腹)이 전위모음인 경우에 */-k/는 */-t/로 합류하였으며, 후위모음인 경우에는 */-k/가 */-t/와 독립된 음가를 유지한다.[15]

2) 입성 운미의 음가

이와 같이, 『辨字摘要』의 입성 운미가 병합되는 조건은 추론할 수 있으나, 실제 음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인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1) 여기에는 */-p/&*/-t/, */-p/&*/-Ø/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운(韻)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Ø/로서 '陰聲韻' 혹은 '陽聲韻' 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 같이 주요 운서 혹은 자전에 수록되지 않아 운(韻)이 불명에 속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2) 饒應召, 『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p.2

13) 박규정, 「『辨字摘要』 입성 글자 운미 병합의 음성적 조건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22, pp.201-205.

14) 이는 -p의 동종운미(-p의 글자만으로 '字組'를 이룸)와 이종운미('字組'에 -p외의 운미가 혼재함)의 비율이 8.7%와 91.3%로, 이종운미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박규정, 「『辨字摘要』 입성 글자 운미 병합의 음성적 조건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22, pp.198-201.

15) 예를 들어, */-k/ 字組 중에서 운복이 전위모음에 해당하는 '白'字組는 15개 글자 중에 */-t/가 6개 혼재되어 있으나, 후위모음에 해당하는 '叔'字組는 14개의 글자가 모두 */-k/이다. 饒應召, 『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pp.38-41.

첫째,『辨字摘要』자체에 글자의 실제 음가와 관련한 설명이 거의 없다. '凡例' 부분에 '이 책에서는 平上去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하나의 그룹 내에서는 音과 韻에 따라 조를 나눠 편집하고 배열하였다'의 기술만 있을 뿐,[16] 실제 글자를 해설하는 부분에는 해당 글자의 발음 혹은 음가와 관련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발음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고 하여도, '反切' 혹은 '同音字', 즉 다른 한자를 이용하여 발음을 표기하던 방법이 통용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辨字摘要』편찬 시기의 樟樹(清江) 방언을 기록한 외국 문헌 혹은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외국어 단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조선 왕조에서 편찬된『노걸대(老乞大)』의 언해본에서는 한자에 언문(諺文)으로 발음을 표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正俗音은 당시 북방지역에서 사용되던 중국어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판본의 변화에 따른 표기의 변화를 통해 북방지역 중국어가 변화하는 모습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17] 또 다른 예로서 영어에서 '차(茶)'를 나타내는 'tea'와 'cha'는 각각 17세기 閩語(廈門)과 16세기 粵語(澳門)에서 사용되던 말이 각각 네덜란드어와 포르투갈어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樟樹(清江) 방언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예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辨字摘要』시기 樟樹(清江) 방언 입성 운미의 음가는 현대의 贛方言에 속하는 여러 방언 중에서『辨字摘要』의 입성 운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음가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대 贛方言중에서 18세기 樟樹(清江) 방언의 입성 운미 병합과 비슷한 경우, 즉 치경음 계열과 연구계음 계열의 입성 운미로 대별되는 경우를 찾아야 하는데, 陳昌儀(2005)에 의하면 5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가. (陳昌儀 2005)[18]

---

16) "此書以平上去入爲四類一類之中依音韻相同者分組編列". 饒應召,『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p.2

17) 그러나 正俗音을 최세진이 만들어낸 일종의 중간언어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신용권,「『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중국어문학』, 제4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6, pp.539-540. 盧相峰,「『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漢訓諺字皆從俗撰字旁之點亦依鄕語』注釋」,『중국학』, 제39집, 대한중국학회, 2011, p.99.

18) 운미가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더라도 방언에 따라 병합되는 조건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高安市와 新建縣에서는 입성운미가 모두 (-t, -?)의 형태로 실현되지만, 高安市에서는 /-p/와 (전위/고위)韻腹 뒤의 /-k/가 /-t/로 합류하였으나 新建縣에서는 /-p/만 /-t/로 합류하였다. 다만 樟樹방언 및 樟樹(清江)방언 이외의 방언은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한다. 陳昌儀 主編,『江西省志・江西方言志』, 江西省, 2005, pp.73-74, pp.106-107.

(-t, -k): 餘幹縣(玉亭鎮134.5NE)[19]

(-t, -ʔ): 南昌市(紅穀灘區78.5NNE), 高安市(縣級, 瑞州街道44.5NNW)

南昌市新建縣(長埈鎮77.8NNE), 安義縣(龍津鎮88N), 進賢縣(梅莊鎮104.5NE), 樂安縣(鼇溪鎮76.1SSE), 金溪縣(秀穀鎮120SEE)

(-l, -k): 都昌縣(都昌鎮150.5NNE)

(-l, -ʔ): 奉新縣(馮川鎮75NNW) 新幹縣(三湖鎮18SW)

(-ʔ, -k): 萬年縣(青雲鎮150NEE)

그리고 劉綸鑫(1999)에서는 (t, k), (t, ʔ), (l, k)의 3가지 경우가 존재하였으며[20], 盧繼芳(2016)에서는 비록 贛方言 가운데 都昌片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t, k), (t, ʔ), (l, k), (t, ʔ)의 4가지 경우를 밝히고 있다.

나. (劉綸鑫 1999)[21]

(-t, -k): 餘幹縣(玉亭鎮134.5NE)

井岡山市(縣級, 下七鄉224.5SW)

萬載縣(康樂鎮107W), 奉新縣(操溪鄉94.5SW)

(-t, -ʔ): 南昌縣(塔城鄉74NE)

南昌市新建縣(大塘坪110NNE), 修水縣(黃沙橋127.8NW), 遂川縣(大汾鎮240.5SW), 崇仁縣(巴山鎮57.5SE), 金溪縣(秀穀鎮120SEE), 宜豐縣(新昌鎮83.5NW), 上高縣(敖陽鎮64.6SWW)

(-l, -k): 都昌縣(都昌鎮150NEE)

다. (盧繼芳 2016)[22]

(-t, -k): 都昌縣(北炎鄉), 安義縣(新民鄉), 新建縣(金橋鄉)

(-t, -ʔ): 永修縣(立新鄉), 安義縣(龍津鎮), 新建縣(長埈鎮)

---

19) 숫자는 樟樹市에서의 거리(km)를 나타내며, 알파벳은 방위를 나타낸다. 다만, 百度 地圖(map.baidu.com)에서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였으므로 다소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다.

20) 陳昌儀(2005)와 劉綸鑫(1999) 모두 贛方言에 속하는 여러 방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같은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입성 운미의 실현양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방언 조사 지점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奉新방언이라고 할지라도, 馮川鎮에서는 (-l, -ʔ)로 실현되었으나 操溪鄉에는 (-t, -k)로 실현되었다. (操溪鄉은 馮川鎮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42km 떨어져 있다.) 陳昌儀 主編,『江西省志・江西方言志』, 江西省, 2005, pp.105-106. 劉綸鑫,『客贛方言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pp.81-82.

21) 劉綸鑫,『客贛方言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22) 盧繼芳(2016) 및 盧繼芳·張曉霞(2020)에서는 曾, 梗攝의 文讀音이 /-t/로 합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형을 나누기도 하였다. 盧繼芳,「贛語昌都片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論文, 2016, pp.407-409. 盧繼芳·張曉霞(2020),「贛語昌都片方言中古入聲字今讀特點與演變規律」,『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51卷 第2期, 南昌大學, 2020, pp.121-122.

(-l, -k): 都昌縣(都昌鎮)

(-l, -ʔ): 都昌縣(萬戶鎮), 湖口縣(流芳鄕), 修水縣(義寧鎮)

위의 다섯 가지 경우 중에서 사용되는 지역과 樟樹市와의 거리 및 인접 여부에 따라『辨字摘要』시기 樟樹(清江) 방언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의 정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樟樹市에 인접한 도시인 高安市(瑞州街道, 44.5km)와 新幹縣(三湖鎮, 18km)에서 사용되는 (-t, -ʔ), (-l, -ʔ)가 樟樹市와 150km 이격한 萬年縣(青雲鎮)에서 사용되는 (ʔ, k)보다 樟樹(清江)방언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t, -ʔ), (-l, -k), (-l, -ʔ), (-ʔ, -k) 모두가 (-t, -k)에서 변화되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이 다섯 가지 경우 모두를 최적성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3. 樟樹(清江)방언 입성 운미 병합에 대한 최적성이론 분석

2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辨字摘要』시기 樟樹(淸江) 방언의 입성 운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a. Ident(Place Feature):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조음 위치와 연관된 자질을 유지한다.[23]

b. *-p]σ: p가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다.

c. *-t]σ: t가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다.

d. *-k]σ: k가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다.

e. *[-oral]]σ: [-or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다.[24]

f. Ident(Manner Feature): 입력형과 출력형에서 조음 방법과 연관된 자질을 유지한다.[25]

g. *[+obs]]σ: [+obs] 자질을 가진 자음이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다.

h. *[+nasal]]σ: [+nas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다.

i. *[+lateral]]σ: [+lateral] 자질을 가진 자음이 음절의 Coda에 오는 것을 제한한

23) 제약 조건과 변별 자질은 각각 Kager(2001)과 Lass(1984)를 참조하였다. 이후에는 Ident(Place Feature)를 Ident(PlaceF)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Rene Kager, *Optimality Theory*,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1, p.29. Roger Lass, *Phonology: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84-95.

24) [-oral] 자질은 성문음과 다른 자음을 구분한다. Roger Lass, *Phonology: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84.

25) 이후에는 Ident(Manner Feature)를 Ident(MannerF)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다.[26]

j. MAX(Segment): 입력형의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해야 한다.[27]

k. No-Coda: 음절의 Coda에 자음이 오는 것을 제한한다.

1) *[-t]와 *[-k]

18세기의 樟樹(清江)방언에서 운미가 *[-p] 와 *[-ʔ]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t]와 *[-k]로 실현되었다면,[28] 이는 *[-p]와 *[-ʔ]의 실현을 제약하는 유표성 제약이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에 있으며,[29] *[-t] 및 *[-k]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은 충실성 제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공식과 표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 *-p]σ, *[-oral]]σ ≫ Ident(PlaceF) ≫ *-k]σ, *-t]σ

<표1>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1-1)

*/-p/	*-p]σ	*[-oral]]σ	Ident (PlaceF)	*-k]σ	*-t]σ
*[-p]	*!				
☞ *[-t]			*		*
*[-k]			***!	*	
*[-ʔ]		*!	**		

<표1>을 보면, 첫 번째 후보형(*[-p])과 네 번째 후보형(*[-ʔ])은 각각 상위 제약 '*-p]σ'과 '*[-oral]]'를 위반하여, 세 번째 후보형(*[-k])는 차상위제약 'Ident(PlaceF)'을 3회 위반하여 탈락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후보형(-t)가 출력형으로 선택된다.[30]

26) [+nasal] 자질은 비음과 다른 자음을, [+lateral] 자질은 유음과 다른 자음을 구분한다. Roger Lass, *Phonology: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89.

27) 충실성 제약인 MAX(Segment) 제약은 입력형의 분절음이 출력형에서 대응되도록 하는데, 이는 분절음의 '삭제(Deletion)'를 막는 역할을 한다. 아래에서는 MAX(Seg)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28) 운미가 18세기 樟樹(清江)방언에서 실현되는 형태는 *[-p] 등으로 표기한다.

29) 梅縣방언과 같이 구강 파열음 운미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이 특정 조음 위치의 운미를 제한하는 모든 유표성 제약보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聲韻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pp.284-288.

30) '*'는 후보형(candidate)이 '모종의 제약을 위배하였음(violation of constraint)'을 나타내고, '!'는 후보형이 탈락, 즉 출력형에서 실현되지 못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대한 위배(critical violation)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는 가장 조화로운 후보형(the most harmonious candidat

이는 '*/-p/'가 그 음가를 잃은 후에 '*[-k]'가 아닌 '*[-t]'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음 방법은 변화하지 않으며(즉,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비음, 유음, 혹은 기타의 음으로 실현되지 않음) 운미 자체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관련한 충실성 제약이 유표성 제약보다 상위에 놓인다. 이를 나타내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l' Ident(MannerF), MAX(Seg) ≫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l와 l'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 *-p]σ, *[-oral]]σ,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k]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표2>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1-2)

*/-p/	*-p]σ	*[-oral]]σ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p]	*!							*			*
☞ *[-t]					*		*	*			*
*[-k]					***!	*		*			*
*[-ʔ]		*!			**			*			*
*[-m]			*!**						*		*
*[-l]			*!***		***					*	*
*[-Ø]				*!							

<표2>에서는 두 번째 후보형(*[-t])을 제외한 모든 후보형이 탈락하였다. 이때,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후보는 최상위 제약을 위배하며, 세 번째 후보는 차상위 제약을 위배한다. 이는 '*/-p/'가 조음 방법이 변화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조음 위치가 다른 파열음 중에서도 '*[-t]'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위 모음 뒤에 있는 */-k/가 *[-t]로 실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e), 즉 최적형(Optimality)를 의미한다.

o. *[-back][-Cons]&k: 자음 k는 [-back]의 자질을 가진 모음 뒤에서 실현이 제한된다.

이 제약은 *[-p]와 *[-ʔ]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과 마찬가지로 조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보다 상위에 놓이며, 이를 아래와 같이 공식 m과 함께 정리할 수 있다.

p. *-p]σ, *[-oral]]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k]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표3>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1-3)

*/-εk/	*-p]σ	*[-oral]]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εp]	*!					***			*			*
☞ *[-εt]						****		*	*			*
*[-εk]			*!				*		*			*
*[-εʔ]		!*				***			*			*
*[-εŋ]				*!**						*		*
*[-εl]				*!***							*	*
*[-ε]					*!							

<표3>에서는 두 번째 후보형(*[-εt])을 제외한 모든 후보형이 최상위 제약을 위배하여 탈락하였다. 이는 '*/-k/'가 전위모음 뒤에서 조음 방법의 변화 및 탈락 없이 다른 파열음 중에 '*[-t]'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 *[-t]와 *[-ʔ]

18세기의 樟樹(清江)방언에서 */-t/에 합류되지 못한 */-k/가 *[-ʔ]로 실현된다면, 여기에서 *[-ʔ]로 실현되는 */-k/는 공식 p의 제약 등급관계에 의해 전위모음 뒤의 */-k/가 제외된 나머지인 것이다. 이에, */-t/에 합류되지 못하고 남겨진 */-k/가 *[-ʔ]로 실현되는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3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t/에 합류되지 못한 */-k/가 *[-ʔ]로 실현됨은 *

[-k]를 제한하는 제약과 *[-ʔ]를 제한하는 제약 사이에서 등급관계에 변화가 발생함에서 기인한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 *-p]σ, ***-k]σ**,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oral]]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m'는 여기에서 2단계에 해당하므로, 전위 모음 뒤의 */-k/를 걸러내는 1단계와 함께 정리한 전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

q. (1단계) *-p]σ, *[-oral]]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k]σ ≫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2단계) *-p]σ, ***-k]σ**,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oral]]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표4>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2-1)
(1단계)

*/-uk/	*-pσ	*[-oral]]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up]	*!					***			*			*
*[-ut]						****!		*	*			*
☞ *[-uk]							*		*			*
*[-uʔ]		*!				***			*			*
*[-uŋ]				*!**						*		*
*[-ul]				*!***							*	*
*[-u]					*!							

31) 초기의 최적성이론에서는 하나의 공식 및 표를 이용하는 '병렬적(parallel) 분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나, Rubach(2000a, b)는 '순차적(serial) 도출'을 이용하여 기존 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도출형 최적형 이론(Derivational Optmailty theory, DOT)'이라 칭하며, 이와 관련된 설명은 안상철(200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상철,『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2003, pp.213-215.

(2단계)[32]

*/-uk/	*-p]σ	*-k]σ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oral]]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up]	*!				***			*			*
*[-ut]					****!		*	*			*
*[-uk]		*!				*		*			*
☞ *[-uʔ]					***			*			*
*[-uŋ]			*!**						*		*
*[-ul]			*!**							*	*
*[-u]				*!							

<표4>에서 1단계에서는 입력형과 같은 후보형 '*[-uk]'가 그대로 선택되어 2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제약 등급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후보형 '*[-uk]'가 선택되지 못하고 다른 후보형 '*[-uʔ]'이 최적형이 되었다. 이는 후위모음 뒤의 '*/-k/'가 전위모음 뒤의 '*/-k/'와는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33]

3) *[-l]와 *[-k/ʔ]

18세기의 樟樹(清江)방언에서 */-t/가 [-l]로 실현된다면, 이는 *[-t]를 제한하는 제약이 상위에 있는 동시에 *[-l]을 제한하는 제약과 조음 방법을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 사이의 등급 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t/가 비음인 *[-n]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데, 이는 *[-n]을 제한하는 제약 역시 상위에 놓여 있는 탓이다. 이를 공식 및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m". *-p]σ, *-t]σ, *[-oral]]σ, *[+nasal]]σ, MAX(Seg) ≫ Ident(PlaceF) ≫ Ident(MannerF) ≫ *-k]σ, *[+obs]]σ, *[+lateral]]σ, No-Coda

32) 표에서 음영을 넣은 제약은 2단계에서 등급관계가 변화한 것임을 나타낸다.

33) 박규정(2020)에서 南昌방언에 대하여 다룬 바가 있다. 南昌방언에서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p/,*/-t/,(전위/고위 모음)*/-k/가 /-t/로 합류, (후위 모음)*/-k/는 /-k/로서 독립된 음가를 유지)이 18세기의 樟樹(清江)방언과 유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고 3장 1절과 2절의 제약등급관계가 南昌방언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박규정, 「난창 방언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 제85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0, pp.308-316.

<표5>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3-1)

*/-t/	*-pσ	*-tσ	*[-oral]σ	*[+nasal]σ	MAX(Seg)	Ident(PlaceF)	Ident(MannerF)	*-kσ	*[+obs]σ	*[+lateral]σ	No-Coda
*[-p]	*!					*	***		*		*
*[-t]		*!					***		*		*
*[-k]						*!**	***	*	*		*
*[-ʔ]			*!			***	***		*		*
*[-n]				*!							*
☞ *[-l]							**			*	*
*[-Ø]					*!						

<표5>는 */-t/가 *[-l]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제약 등급관계 아래에서는 이하의 <표6>에서처럼 */-n/ 역시 *[-l]로 실현되게 된다.

<표6> 樟樹(清江)방언의 비음 운미(3-1)

*/-n/	*-pσ	*-tσ	*[-oral]σ	*[+nasal]σ	MAX(Seg)	Ident(PlaceF)	Ident(MannerF)	*-kσ	*[+obs]σ	*[+lateral]σ	No-Coda
*[-p]	*!					*	***		*		*
*[-t]		*!					***		*		*
*[-k]						*!**	***	*	*		*
*[-ʔ]			*!			**	***		*		*
*[-n]				*!							*
☞? *[-l]							**			*	*
*[-Ø]					*!						

그렇지만 현재의 樟樹방언에서도 */-n/은 그대로 비음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18세기의 樟樹(清江)방언에서도 비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와 관련한 다음의 충실성 제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nasal], 즉 비음을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을 지배한다. 이를 공식과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r. Ident I→O(Nasal): 입력형의 'nasal' 자질은 출력형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m'''. *-p]σ, *-t]σ, *[-oral]]σ, Ident I→O(Nasal), MAX(Seg) ≫ *[+nasal]]σ, Ident (PlaceF) ≫ Ident(MannerF) ≫ *-k]σ, *[+obs]]σ, *[+lateral]]σ, No-Coda

<표7> 樟樹(清江)방언의 비음 운미(3-2)

*/-n/	*-p]σ	*-t]σ	*[-oral]]σ	Ident I↓O (Nasal)	MAX(Seg)	*[+nasal]]σ	Ident(PlaceF)	Ident(MannerF)	*-k]σ	*[+obs]]σ	*[+lateral]]σ	No-Coda
*[-p]	*!			*			*	***		*		*
*[-t]		*!		*				***		*		*
*[-k]				*!			***	***	*	*		*
*[-ʔ]			*!	*			***	***		*		*
☞ *[-n]						*						*
*[-l]				*!				**			*	*
*[-Ø]					*!							

이 때, 전위 모음의 뒤에 있는 */-k/는 */-t/로 합류하여 *[-l]로 실현되는 반면에 후위 모음 뒤에 있는 */-k/는 원래 음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관련 제약이 여전히 조음 위치를 유지하는 제약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m'''를 감안하여 공식과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s. *-p]σ, *-t]σ, *[-oral]]σ, *[-back][-Cons]&k, Ident I→O(Nasal), MAX(Seg) ≫ *[+nasal]]σ, Ident(PlaceF) ≫ Ident(MannerF) ≫ *-k]σ, *[+obs]]σ, *[+lateral]]σ, No-Coda

<표8>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3-2)

-εk	*-p]σ	*-t]σ	*[-oral]]σ	*[-back][-Cons] &k	Ident I↓O (Nasal)	MAX(Seg)	*[+nasal]]σ	Ident(PlaceF)	Ident(MannerF)	*-k]σ	*[+obs]]σ	*[+lateral]]σ	No-Coda
*[-εp]	*!							***			*		*
*[-εt]		*!						****			*		*
*[-εk]				*!						*	*		*
*[-εʔ]			!*					***			*		*
*[-εŋ]					*!		*		***				*
☞ *[-εl]								****	****			*	*
*[-ε]						*!							

<표8>에서는 여섯 번째 후보형(-ɛl)을 제외한 모든 후보형이 최상위 제약 및 차상위 제약을 위배하여 최적형으로 선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k/가 전위모음 뒤에서 탈락하지는 않으나 조음 방법이 변화하여 *[-l]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t/ 및 */-t/로 합류한 전위 모음의 뒤에 있는 */-k/가 *[-l]로 실현되고 후위 모음 뒤에 있는 */-k/가 *[-ʔ]로 실현되는 경우에도 -l을 제한하는 제약, -n을 제한하는 제약과 조음 방법을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 사이의 등급 관계는 동일한데,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 (1단계) *-p]σ, *-t]σ, *[-oral]]σ, *[-back][-Cons]&k, Ident I→O(Nasal), MAX(Seg) ≫ *[+nasal]]σ, Ident(PlaceF) ≫ Ident(MannerF) ≫ *-k]σ, *[+obs]]σ, *[+lateral]]σ, No-Coda

(2단계) *-p]σ, ***-k]σ**,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oral]]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표9>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3-3)

(1단계)

*/-uk/	*-p]σ	*-t]σ	*[-oral]]σ	*[-back][-Cons]&k	Ident I↓O (Nasal)	MAX(Seg)	*[+nasal]]σ	Ident(PlaceF)	Ident(MannerF)	*-k]σ	*[+obs]]σ	*[+lateral]]σ	No-Coda
*[-up]	*!							***			*		*
*[-ut]		*!						****			*		*
☞ *[-uk]										*	*		*
*[-uʔ]			!*					***			*		*
*[-uŋ]					*!		*		***				*
*[-ul]								*!***	****			*	*
*[-u]						*!							

(2단계)

*/-uk/	*-p]σ	*-k]σ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oral]]σ	*-t]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up]	*!				***			*			*
*[-ut]					****!		*	*			*
*[-uk]		*!				*		*			*
☞ *[-uʔ]					***			*			*
*[-uŋ]			*!**						*		*
*[-ul]			*!***		****					*	*
*[-u]				*!							

<표9>에서 1단계에서는 전위 모음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형 *[-ul]이 배제되고 입력형과 같은 후보형 '*[-uk]'가 그대로 선택되어 2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후보형 '*[-uk]'가 탈락하고 다른 후보형 '*[-uʔ]'이 최적형이 되었다.

4) *[-ʔ]와 *[-k]

18세기의 樟樹(清江)방언에서 */-t/가 *[-ʔ]로 실현되는데 */-k/는 음가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t]를 제한하는 제약과 *[-ʔ]를 제한하는 제약 사이의 등급 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u. *-p]σ, *-t]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 Ident(PlaceF) ≫ *-k]σ, *[-oral]]σ, *[+obs]]σ, *[+nasal]]σ, *[+lateral]]σ, No-Coda

<표10>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4-1)

*/-ut/	*-p]σ	*-t]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σ	*[-oral]]σ	*[+nasal]]σ	*[+lateral]]σ	*[+obs]]σ	No-Coda
*[-up]	*!					*					*	*
*[-ut]		*!						*			*	*
*[-uk]						****!	*				*	*
☞ *[-uʔ]						***					*	*
*[-un]				*!**					*			*
*[-ul]				*!***						*		*
*[-u]					*!							

<표11> 樟樹(清江)방언의 입성 운미(4-2)

*/-uk/	*-p]σ	*-t]σ	*[-back][-Cons]&k	Ident(MannerF)	MAX(Seg)	Ident(PlaceF)	*-k]σ	*[-oral]]σ	*[+nasal]]σ	*[+lateral]]σ	*[+obs]]σ	No-Coda
*[-up]	*!					***					*	*
*[-ut]		*!				****		*			*	*
☞ *[-uk]							*				*	*
*[-uʔ]						*!**					*	*
*[-un]				*!**					*			*
*[-ul]				*!***						*		*
*[-u]					*!							

<표10>와 <표11>에서 모두 최상위 제약 및 차상위 제약에 의하여 최적형이 결정되었다. 이는 후위 모음 뒤에 있는 '*/-k/'만 음가를 유지하고 나머지(*/-p/, */-t/, 전위 모음 뒤의 */-k/)는 모두 *[-ʔ]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4. 결론

18세기 중엽에 편찬된『辨字摘要』는 본래 습자서이나, 사성(四聲)에 따라 글자를 분류하고 音과 韻에 따라 그룹으로 묶은 것을 볼 때, 당시 樟樹(清江)방언의 음운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辨字摘要』에서 개별 글자가 각 '字組'로 분류된 양상을 통하여 입성 운미의 병합 조건을 알 수 있다. 첫째로 */-p/는 */-t/로 병합되었으며, 둘째로 전위모음 뒤의 */-k/는 */-t/로 병합되었으나 후위모음 뒤의 */-k/는 독립된 음가를 유지한다.

다만, */-t/와 */-k/의 음가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기에, 贛方言의 여러 방언을 통하여 다섯 가지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t], *[-k]), (*[-t], *[-ʔ]), (*[-l], *[-k]), (*[-l], *[-ʔ]), (*[-ʔ], *[-k]).

이러한 음가의 차이는 제약조건 Ident(PlaceF), *-p]σ, *-t]σ, *-k]σ, *[-back][-Cons]&k, *[-oral]]σ, Ident(MannerF), Ident I→O(Nasal), *[+obs]]σ, *[+nasal]]σ, *[+lateral]]σ, MAX(segment), No-Coda 사이의 등급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파열음을 유지할 시의 음가는 Ident(PlaceF), *-p]σ, *-t]σ, *-k]σ, *[-back][-Cons]&k, *[-oral]]σ 사이에서 제약 등급 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p]σ, *-t]σ, *[-back][-Cons]&k가 Ident(PlaceF)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nasal]]σ이 Ident(MannerF)를 지배하는 동시에 Ident(MannerF)가 *[+lateral]]σ보다 상위에 놓이는 경우에는 유음이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본고에서 불가능했던 樟樹(清江)방언의 음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이를 통해 음성 및 음운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안상철,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2003

陳昌儀 主編, 『江西省志・江西方言志』, 江西省, 2005.

李　軍, 『江西贛方言歷史文獻與歷史方音研究』, 商務印書館, 2015.

劉綸鑫, 『客贛方言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饒應召, 『詳註辨字摘要』, 廣益書局, 民國時期.

Rene Kager, *Optimality Theory*,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1.

Roger Lass, *Phonology: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논문>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聲韻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_____, 「난창 방언의 입성(入聲)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 제85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0.

_____, 「『辨字摘要』 입성 글자 운미 병합의 음성적 조건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22.

신용권,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제4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6.

陳　芳, 「『辨字摘要』與『類字蒙求』聲韻比較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19.

李　軍, 「『辨字摘要』--部乾隆年間的音節檢字法字典」, 『晉中學院學報』, 第32卷 第1期, 晉中學院, 2015.

盧繼芳, 「贛語昌都片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論文, 2016.

盧繼芳·張曉霞(2020), 「贛語昌都片方言中古入聲字今讀特點與演變規律」, 『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51卷 第2期, 南昌大學, 2020

盧相峰,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漢訓諺字皆從俗撰字旁之點亦依鄕語』注釋」, 『중국학』, 제39집, 대한중국학회, 2011.

謝豔紅·周賽華, 「贛方言韻書——『辨字摘要』音系」, 『湖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0卷 第3期, 湖北師範學院, 2010.

習　晨, 「江西省宜春市樟樹(市)方言語音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2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辨字摘要, 樟樹(清江)方言, 入聲, 韻尾, 合並
	영문	*Bianzizhaiyao*, Zhangshu(Qingjiang) dialect, Checked-tone, Fianls, Merging

A Study on the Checked-tone Finals in Zhangshu(Qingjiang) Dialect
: On the Focus of *Bianzizhaiyao*

Park Kyu-Jung

Bianzizhaiyao is the vocabulary book which has been written at Qingjiang County Jiangxi Province in the mid-18th century. This book also has the nature of rhyme dictionary, for classifying Chinese characters according to four tones and grouping 'character sets' in accordance with pronunciation and rhyme.

From the aspects of which characters have been divided into each sets, we can make deduce the terms of merging checked-tone finals in Zhangshu(Qingjiang) dialect at that time. First, */-p/ has merged into */-t/. Second, */-k/ behind front vowels amalgamated with */-t/, but */-k/ following back vowel kept independent phonetic value. The accurate phonetic value of finals cannot be figured out, for the characteristic of Chinese character and the absence of related data. However, we can find out five possibilities throughout the regional dialects in Gan dialect: (*[-t], *[-k]), (*[-t], *[-ʔ]), (*[-l], *[-k]), (*[-l], *[-ʔ]), (*[-ʔ], *[-k]).

The difference of phonetic value is determined by the hierarchy among the constraints, which are Ident(PlaceF), *-p]σ, *-t]σ, *-k]σ, *[-oral]]σ, Ident(MannerF), Ident I→O(Nasal), *[+obs]]σ, *[+nasal]]σ, *[+lateral]]σ, MAX(segment), No-Coda, *[-back][-Cons]&k.

저 자	박규정 / 朴奎貞 / Park Kyu-J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3.	게재확정일	2023.09.13.